

전북 문화관광 새 10년 비전 선포

전북문화관광재단, 창립 10주년 맞아 문화예술·관광 신년인사회 상황리 개척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되짚고 향후 10년의 비전을 공식화하며 전북 문화관광의 새 도약을 선언했다.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지난달 29일 전주 라한호텔 온고을홀에서 '재단 창립 10주년 기념 2026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관광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재단 출범 이후 10년의 발자취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이원택 국회의원, 김희수 전북도의회 부의장과 도의원,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관계자, 관광기업 대표, 언론계 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재단의 10주년을 축하하며 전북 문화예술과 관광의 지속적인 성장을 함께 다짐했다.

행사는 클래식 앙상블 '디네트'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개회와 국민의례, 주요 내빈 소개 후 김관영 도지사의 신년사가 진행됐다.

김 지사는 신년사를 통해 "전북 문화예술과 관광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동력"이라며, "문화와 관광을 통해 글로벌 생명경제도

시 전북의 위상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함께한 10년'을 주제로 한 아카이빙 영상을 통해 재단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특별한 미래'를 화두로 향후 10년간의 운영 방향과 전략을 제시했다.

재단은 앞으로 예술 창작 생태계 고도화와 도민 문화향유권 확대를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14개 시·군과의 유기적 협력 강화와 관광 콘텐츠의 산업화, 글로벌 확장 역시 중점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과 관광 발전에 기여한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 '제3회 전북 예술·관광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총 15건의 수상이 이뤄지며 전북 문화관광 현장을 이끈 주역들이 조명됐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최지영(한국미술협회), 이한철(한국사진작가협회), 권운주(순창옹기제작소), 심정임(정음행버오케스트라), 이해경(전북도립국악원), 정성구(한국연구협회 전주지부), 사계 art&culture, 아트컴퍼니 두루, 창작극회 등 9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관광 분야에서는 런파인(대표 최원창), 봉강요(대표 진정욱), 글로스터호텔 전주점(이철

종), (주)피치(대표 강선구), 왕궁포레스트(대표 김형일), 국제문화교류진흥원(원장 박기홍) 등 6곳이 선정됐다.

특히 관광 분야 수상팀인 '런파인'은 축하 공연을 통해 뮤지컬 넘버와 판소리를 결합한 무대를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렸다.

재단 창립 이후 10년간 조직의 성장과 지역 문화관광 발전을 함께 이끈 직원 10명에 대한 장기근속 표창도 함께 진행됐다.

이날 재단의 전문성과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평가됐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함께한 10년, 특별한 미래'를 주제로 한 기념 세리모니였다.

참석자들은 스마트폰 플래시를 활용해 전북 문화관광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와 함께 전주 하계울림피유지에 대한 열원도 메시지로 전달됐다.

이경운 대표이사는 "이번 10주년 신년인사회는 단순한 기념행사가 아니라 전북 문화예술·관광의 지난 성과를 집약하고, 미래 10년의 방향을 공유하는 선언의 자리였다"며, "도민과 예술인, 관광연계가 함께 만드는 '특별한 미래'를 차근차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태와 굿패

4부 '굿패와 전쟁' (23)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 오상근 (본보 경제부장) -

골라낸 인원은 어른들에 아이들까지 합해 100여 명쯤 되어 보였다. 박주성이 손가락으로 가리킨 사람들은 모두 박씨였다. 박주성은 명희의 아버지 박규환과 어머니 연기대, 그리고 동생들까지도 속아냈다.

"어떻게 하려는 걸까?"

명희의 질문에 남준도 답을 줄 수 없었다. 그러나 남준이 학도대에서 활동하면서 지켜왔던 군경의 행동 양식을 비춰보면 지금 저 상황도 좋은 쪽으로 결말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걸 명희에게 말할 수는 없었다.

게다가 중대장은 다른 아닌 강용대였다. 자신의 온가족이 비참하게 살해된 피해자 본인이었다. 하지만 남준이 알고 있는 강용대는 적어도 박대우와는 다른 사람이다.

적극적이고 즉흥적인 박대우에 비해 이성적이고 점잖은 사람이다.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도 마침내 강용대가 남준의 복수를 대신해줄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릴 수 없다.

쉬이지 않을 것 같은 명희에 대한 연민과 가족에 대한 복수심이 마음속에서 어색하게 서로를 끌어안고 뒤섞였는데, 남준은 혼란스럽고 착잡하기 이를 데 없었다.

강용대는 박주성도 가려낸 사람들과 함께 강용대에게 말했다. 그는 소대장들을 모아 잠시 판가를 의논했는데 쉽게 결론을 내지 못하는 시간이 흘렀다.

"피부에 붉은 게 많이 생겼네."

잠시 무료한 시간이 흘렀는데 명희가 남준의 얼굴과 손을 찬찬히 살피면서 말했다. 목 주위와 손에 붉은 반점이 번지고 있었다.

"아직도 가려워?"

남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병원에 가지 않았느냐고 명희가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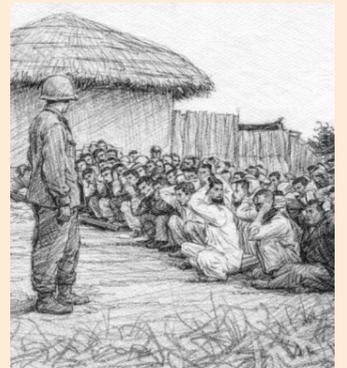
"피부약을 썼는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 그래도 가려움증은 조금 나아진 편이야."

"큰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아야 하는 거 아닐까?"

남준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지금 한가하게 자신의 피부병에 대해 의견을 나눌 타이밍이 아닌 것이다.

명희의 부모님과 동생들이 저 아래에 었드려 있었다.

소대장들과 의견을 나눈 강용대는 무전병을 불러 누군가와 무전 통화를 했다. 통화를 마친 강용대는 소대장 하나를 불러 또 판가를 지시했고, 소대장은 앞으로 있는 사람들 중 여자들을 모두 일어서게 했다. 여자들을 일으켜 세워 한쪽으로 모이게



생성형 AI로 제작된 이미지

한 다음 남자들을 일으켜 세워 여자들과 따로 분리했다. 장병들은 일어난 사람들의 손을 남자들 따로 여자들 따로 묶었다.

명희가 남준에게 눈을 돌렸다. 어딘가로 데려가서 총으로 쏘 죽이려는 걸까? 명희의 눈에 그런 말이 서려 있었다. 남준은 명희의 눈을 피했다.

"어디로 데려가는 것일까?"

"그러게 말아야."

강용대 중대는 여자들을 앞세우고 남자들을 뒤에 따라가게 하면서 마을을 벗어났다. 중대는 선운산 둘레를 타고 돌면서 해리면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포박한 사람들을 데리고 강용대 중대는 황전 앞으로 나갔다. 앞길로 나가면 봉림 가는 방향이다.

남준과 명희는 숨을 죽이고 앞길로 나가는 그들을 지켜봤다. 박규환과 연기대, 동생들을 구해야 했지만 남준과 명희는 지켜만 볼 뿐 다른 방도는 없는지라 속을 시커멓게 태우면서 안절부절 못할 뿐이다.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냐고 묻는 자가 있었지만 경찰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사나운 눈으로 쬐렷했다.

대열은 남동쪽으로 나아갔다. 이 길로 가면 봉림이다. 상부의 명령대로라면 황전 북쪽으로 전진해야 하는데 무리를 봉림 방향으로 잡는 이유는 무엇일까. 어디로 가려는 것일까.

명희의 부모와 동생들을 포함한 황전 사람들을 데리고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강용대 중대장과 소대장들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대오는 산을 타지 않고 개활지의 넓은 길을 따라 이동하고 있었다. 개천을 지난 무리는 봉림에 이르렀다.

부안예술회관, 2월 무료 영화 '정보원' 19일 상영

부안군은 2월 무료 영화 '정보원'을 오는 19일 오후 3시와 오후 7시 30분 총 2회에 걸쳐 부안예술회관 공연장에서 무료로 상영한다고 밝혔다.

영화는 정보 하나로 생계를 이어가는 정보원과 한물간 형사가 예기치 못한 사건에 휘말리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미디 영화로 웃음 속에 인간적인 관계와 선택의 순간을 담아냈다.

살아남기 위해 정보를 팔아야 하는 정보원과 과거의 영광을 뒤로한 채 현실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형사는 서로를 믿지 못한 채 힘을 합치

기 시작한다.

그러나 사건이 점점 커지면서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실에 다가가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좌충우돌 활약을 펼친다.

배우 허성태, 조복래, 서민주가 주연으로 출연해 개성 강한 캐릭터와 유쾌한 연기 호흡을 선보이며 연출은 김석 감독이 맡았다.

러닝타임은 103분이며 관람등급은 15세 이상 관람가다.

관람료는 전석 무료로 선착순 입장이며 만석 시 입장이 제한될 수 있고 공연장 내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남원시, 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남원시(시장 최경식)가 2026년도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을 확대해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고 밝혔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 12. 31. 이전 출생자)을 대상으로 도서·공연·영화·여행·스포츠 등 문화예술·관광·체육 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6년에는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하며, 청소년(2008~2013년생)과 준고령기(1962~1968년생) 대상자에게는 생애주기별 문화복지 강화를 위해 1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카드 발급은 2월 2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이용 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로,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년도 3만 원 이상 사용 이력이 있고 자격을 유지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1월 21일 자동 재충전을 완료했으

며, 자동 재충전 대상이 아닌 이용자와 신규 발급 대상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남원시는 연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되는 만큼, 시민들이 사용하기 내 혜택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연중 지속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며, 문화누리카드 관련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누리집(www.nmy.kr) 및 고객센터(1544-3412) 등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관풍각

내아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날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감영 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